

FOCUS 크리틱

'소리'의 열린 해석

김소라展 5. 25~7. 10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작가가 만들어 놓은 가상 세계로서의 예술과, 감상자가 작가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 가는 가상 세계로서의 예술. 예술의 이념적 두 부류다. 현실의 예술작품은 이 두 부류의 어느 한쪽에 분명하게 속하거나, 그 중간 어딘가에 속한다. 작가가 만들어 놓은 의미가 상대적으로 분명하여 다른 의미를 감상자가 감히 부여하기 어려운 예술이 있다. 이런 예술에서 작가는 스승이고 감상자는 학생이다. 스승이 선문답을 하면 학생은 스승의 뜻을 헤아려야 하고 스승이 분명하게 말하면 학생은 스승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모든 학생이 스승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기 어렵다. 예술이 소통되지 못할 수 있는 태생적 이유다. 어렵사리 스승의 뜻을 이해한 소수의 학생은 이제 스승에게 질문하고 감히 비평한다. 비판적 학생은 스승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내기도 한다. 작가와 감상자의 이런 관계는 작가와 협업작가 사이에서도 유효하다.

관객 스스로 구성하는 예술

김소라는 스승으로서의 예술가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 그는 연주자로서의 협업작가에게 분명한 뜻을 밝히지 않는다. 그가 협업작가에게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은 모호한 지침이다. "(모든 계획과 의지를 내려 놓고

무릎을 꿇고 턱으로 빠지는 노래를 부르시오." 선문답 같은 지침에 반발하는 연주자들도 있었다고 한다. 김소라는 그러한 연주자에게 오히려 배웠다. 그렇게 배우고, 대화하고 관찰하며 협업작가의 창조성을 촉발하는 데에 작가의 역할이 있었다. 이들과 함께 김소라는 8시간에 이르는 음향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에 대해 이제 감상자들의 창조성이 동원되어야 한다. 김소라와 협업작가들이 만든 보이지 않는 소리가 전시실에서 10대의 스피커를 통해 매일 8시간 동안 방출된다. 감상자는 어둡고 텅 빈 공간에서 소리를 듣는다. 감상자는 이 소리 공간에서 자기 나름의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인간의 세계 지각이 원래 창조적이라고 말하는 신경과학자 에릭 칸델의 논의를 소개해 보자. 칸델에 따르면 우리는 예술작품을 지각하고 감상하면서 작품에 대해 추론하고 그 추론을 위해 창의적 모형을 구축한다. 추론하고 모형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 선천적 과학자의 태도를 가지고 예술을 감상한다. 곰브리치도 예술작품을 보는 관람자의 뇌에서도 마치 과학자처럼 시행착오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았다. 시행착오를 통해 길을 잃지 않으려면 창의적 가설 혹은 모형을 구축해야 한다. 관객의 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창의적 활동을 관람자의 몫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원래 관객은 예술가 못지않게 창의적이다. 그런 창의성에 기초해 현대예술가들은 감상자들이 스스로 예술을 구성해 가도록 독려한다. 작가는 감상자들의 이러한 예술구성 작업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도움을 주는 이는 분명한 메시지나 확고한 진리를 말하지 않는 법이다. 김소라가 제시한 것은 지침이다. 지침을 따를지 말지는 감상자의 몫이며, 어떻게 따를지 역시 그렇다. 김소라의 지침으로서의 예술은 열린 해석을 기다린다. 그런 예술의 의미는 해석을 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해석자와 감상자를 존중하는 김소라의 작품은 어쩌면 감상자 자신을 찾아가는 성찰에의 초대장일 수 있다. 성찰하는 감상자는 위압적 스승을 앞에 둔 학생이 아니다. 감상자는 김소라를 스승으로 볼 수 없다. 당연히 김소라를 비평할 수도 없다. 김소라는 감상자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자신에게 가해질 수도 있을 모든 비평의 화살을 원천봉쇄했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무엇이 중헌디?' 김소라를 따라 열린 해석을 하고 성찰을 하면서 작가를 이해하고 비평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좋은지, 차라리 닫힌 해석을 하면서 작가를 이해하고 비평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좋은지 말이다.

/ 김진호

김소라는 황병기 강태환 계수정 박민희 방준석 손경호 최태현 알프레드 하르트에게 모든 계획과 의지를 내려 놓고 소리가 온전히 신체를 관통하는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어두운 전시장에는 이들이 각각 가아금 색소폰 피아노 정가 전자기타 드럼 전자음과 등으로 작가의 '금지 악보'에 확장한 사운드 퍼포먼스가 울려 퍼진다. 미술관 로비에는 참여 음악가 8명의 인터뷰 영상이 함께 전시된다.

